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과 산**

스포츠 웨이브
**진화하는
스포츠 공간**



#

해시태그 이벤트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로 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2.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3. 서울시체육회 SNS를 팔로우한다. ▶ 인스타그램: @seoul_sports_council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체육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Contents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이준성 연세대학교 교수
편집 황영찬 홍보마케팅 추진사업단장
 홍보팀 윤영하,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콤포터노벨리(주)
표지일러스트 윤예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04 스포츠 웨이브**
진화하는 스포츠 공간
 1 고대 아테네의 스포츠 공간
 2 스포츠 공간 문화는 현재진행형
 3 모두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경기장'
- 14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과 산
- 24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
 배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함께할 모든 날
후인정 배구감독
- 28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미국에서 온 데빈이 들려주는
서울의 트레일 러닝
- 32 School Of Sports, SOS!**
 배구할 결심, 1학기의 결심
동덕여자고등학교 장효원 교사
- 36 變變 스포츠**
 스포츠 세계대전이 된 청소년들의 놀이터,
 브레이킹
- 38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젊음의 돌직구, 뜨겁게 흘린
야구 동호회 폐가수스
- 42 스포츠는 지금**
 5년의 기다림,
 향저우 아시안게이미 온다
- 46 글로벌 스포츠 현장**
 스포츠 기본 계획 3기,
 일본이 품은 스포츠 비전
- 48 아무튼 스포츠**
 경기장 밖으로 나선
 스포츠 팝업 스토어
- 50 숫자-LOG**
 야구인들의 축제!
 2023 KBO 올스타전
- 52 2023 서울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 54 생생스포츠**
- 58 SSC 뉴스**
- 61 SSAD 뉴스**
- 63 지그재그 낱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진화하는 스포츠 공간

공간의 개념과 쓰임이 달라지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접목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등 1차원적인 공간을 탈피한 지 오래다.
어떠한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변모한 공간.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공간은 무엇일까?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피고,
미래를 상상하며 스포츠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짚어본다.



고대 아테네의 스포츠 공간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춘 '칼로카가티아(καλοκαγαθία)'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다. 고전 그리스의 문화가 태동하던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신체 능력의 빼어남을 겨루는 일이 신들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축제(εορτές)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축제와 성소

고대 그리스 성소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 마련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단순한 제단이나 사당만 세워진 협소한 곳이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곳곳에서 온 순례자와 여행자, 운동선수를 모이게 한 범그리스 성소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선 복합 공간이었다. 가장 이른 시기부터 운동경기가 열린 성역은 제우스의 성소가 위치한 올림피아다. 기원전 776년경에 달리기 경주를 시작으로 열렸다가 그리스 세계 전역으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경기 종목이 늘어나

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올림피아제전은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서기 393년에 폐지될 때까지 천년이 넘도록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였다. 이는 아폴론의 성소가 있는 델포이의 피티아 제전, 포세이돈을 모신 이스트미아 제전, 제우스를 모신 네메아 제전이 탄생하는 데 자극제가 됐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인들은 올림피아제전처럼 4년마다 국제적인 행사인 대(大)판아테나이아 제전을 만들었다. 대(大)판아테나이아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폴리아스를 기리는 축제로 매해 아테나 여신의 탄생일이 있는 헤카톰바이온(Hekatombaion) 달의 끝인 8월 15일경에 시작해 8일간 열렸다. 대(大)판아테나이아에는 음악 경연, 운동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운동경기가 열린 아테네의 스포츠 공간들은 도시의 안팎 곳곳에 위치했고 덕분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고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大)판아테나이아의 경기 종목과 경기장
기원전 4세기, 대(大)판아테나이아의 운동경기는 나체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육상경기와 마상 경기, 해상 경기로 나뉘었다. 육상경기 가운데 한 범주는 올림피아의 운동경기와 동일한 종목으로 이뤄졌고 모든 그리스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했던 종목은 달리기 종목인 스타디온, 스타디온의 두 배 거리를 달리는 디아올로스, 장거리 경주, 군무를 갖추고 달리는 경주다. 또한 레슬링, 권투, 판크라티온의 격투기 종목과 멀리뛰기, 달리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를 겨루는 오종경기도 포함됐다. 다른 한 범주는 아테네인만이 참여하도록 제한된 종목으로 약 2.5km의 거리를 횡단을 들고 여럿의 주자가 이어서 달리는 경주, 군장을 갖춘 남성들의 군무 경연, 신체와 인격이 훌륭한 남성을 뽑는 에우안드리아가 있다. 마상 경기는 올림피아 경기 종목이었으며 대(大)판아테나이아에서도 경마와 전차 경주가 열렸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이 마부가 모는 마차에 탑승해 달리는 마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마차로 뛰어오르는 아포바테스가 추가됐다. 마상 창던지기는 기원전 5세기 말부터 도입된 종목으로 말을 탄 채로 창을 던져 기둥에 세워진 방패에 정확하게 창을 꽂는 경기였다. 해상 경기는 배의 노를 저어 선박의 속도와 정확한 움직임을 겨루는 경기로 아테네에서 가까운 팔레론이나 피레우스 항구가 있는 사로니코스만 부근에서 열렸다. 대(大)판아테나이아 운동경기가 열

린 경기장은 주 경기장의 역할을 한 아고라, 기원전 330년경부터 등장하는 판아테나이아 스타디온, 횡단 경주가 열리는 아카데메이아에서 아고라에 이르는 공간, 마상 경기가 열린 경마장, 사로니코스만에 있던 해상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고루 해당했다.

아테네의 도시 확장과 시민 통합

경기장은 선수들의 출신과 종목에 따라 위치가 달랐다. 종목별로 경기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아테네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와 다른 폴리스 출신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의 수행된 공간적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다른 폴리스 출신 선수가 참여하는 육상경기는 아고라와 스타디온에서 치러졌다. 마상 경기도 아고라에서 열리다가 팔레론에 있는 경마장에서 치러졌다. 아테네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횡단 경주와 희생제는 아카데메이아에서 아크로폴리스까지 이어지는 공간에서 벌어졌다. 역시 아테네인만이 참여했던 해상 경기도 피레우스와 팔레론, 멀리는 수니온곶에 이르는 사로니코스만의 해안에서 벌어졌



기원전 4세기경 판아테나이아의 주요 스포츠 공간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이 소장한 암포라로 판아테나이아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졌다. 한 면에는 선봉장 아테나(Athena Promachos)가 그려지고 다른 면에는 해당 종목이 묘사된다

다. 즉, 대(大)판아테나이아 운동경기는 비아테네 출신 선수들을 위한 경기가 아고라-스타디온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아테네 출신 선수들을 위한 경기는 아카데메이아-아고라-스타디온-사로니코스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치러졌다. 특히 기원전 4세기에 대(大)판아테나이아의 스포츠 공간 확장에는 아테네의 강력한 해상력을 대외에 선보이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부족 간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아테네인들에게 폴리스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아카데메이아에서 수니온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의 영역을 경기장의 공간으로 아우름으로써 너른 아티카(Attica)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에게 아테네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올리브 숲이 우거진 아카데메이아 사로니코스만의 해안 지역은 도시 문화의 수혜로부터 동떨어진 곳이었다. 대(大)판아테나이아의 운동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 주변 지역에는 평소와 달리 사람이 모이고 활기를 불어넣었다. 도시 문화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시민들도 운동경기가 벌어지는 동안은 축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시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대(大)판아테나이아의 운동경기는 도시의 경계를 넘나들며 중심과 외곽, 육상과 해상에서 여러 종목을 열어 아테네의 도시 공간을 전면적으로 활용했다. 운동경기는 아고라를 중심으로 했다가 스타디온이 건설된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변화가 나타났고, 도시 북서쪽의 아카데메이아와 도시의 남서쪽에 이르는 사로니코스만에 있는 항구와 해상까지 경기장으로 활용하면서 도시 전체가 운동경기를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로 기능했다. ⚡

글을 쓴 김혜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테네대학교에서 고전 고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유산, 여행과 역사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집필, 전시 기획 및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 건축된 아테네의 판아테나이아 스타디온은 기원전 330년경과 서기 144년에 석재로 재건됐다. 이후 1896년 제1회 아테네 근대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스포츠 공간 문화는 현재진행형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일 때가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 가장 대중적인 종목은 단연 야구다. 야구를 제대로 즐기려면 야구장이라는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스포츠 공간 문화’를 다룬 이 글은 국내 프로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그중에서도 공간적 경험을 현시점의 스포츠 문화로 접근해 ‘야구장의 공간적 가치’를 재해석했다.



서울시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현 잠실야구장을 스포츠, 전시, 공연 등이 어우러진 스포츠 MICC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문화의 언어(Cultural Languge)

문화적 측면에서 스포츠는 전파력이 강한 콘텐츠다. 명확히 차별화된 문화적 생명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문화적 생명력은 특정 공간을 가득 채우거나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층으로 쌓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리와 빛이다. 공간에서의 소리는 언어로 표현되고 빛은 공간의 집중이다. 스포츠 공간 문화는 공식적 언어와 비 공식적 언어의 형성과 연결을 수반한다. 공식적 언어는 공간이 갖는 생명력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으로 주로 스포츠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형성한다. 프로 구단·리그·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전, 핵심적 가치, 사명 등 상징적이며 공식화된 언어들이 대표적이다. 비 공식적 언어는 공식적 언어를 기반으로 스포츠팬·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대표적인 사례에는 응원가가 있다. 언어를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 스포츠 공간이 잠실야구장이다. 잠실야구장은 두 개 구단(LG트윈스&e두산베어스)의 홈구장을 넘어 국제 야구 대

회 유치 및 콘서트 등 한국형 스포츠 공간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시설은 노후화됐지만 공간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는 하나의 공간 문화로서 잠실야구장이 품은 의미를 강조한다. 특히 이곳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 언어는 국내 프로야구의 팬덤 문화를 빠르게 진화시켰다. 상상해 보라. 강변북로, 88올림픽대로, 지하철 2호선에서 경험하는 불빛들과 함성을! 들어보라. 잠실의 해야 해야와 서울의 찬가를!

감각적 경험: 체득(Bodily Experience)

공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스포츠 공간 경험은 오감과의 연결을 통해 공간과 일체화된다. 스포츠 공간에 대한 체득은 곧 공간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점(기둥)과 선(변)으로 완성된 공간 디자인, 공간 이미지, 공간의 연결 등에 관심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공간 체득 과정을 강조해 설계한

야구장이 창원NC파크다. 창원NC파크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시설 건축 회사에서 설계했다. 국내 야구팬들에게는 국내 프로야구장 중 미국 프로야구장과 가장 유사한 곳으로 유명하다. 창원NC파크는 야구 경기 자체에 집중했는데 그중에서도 야구장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강조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을 강조했다. 또한 관람석을 안락하고 자유롭게 조성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분위기 연출은 경기장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야구장이라는 무대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창원NC파크는 스포츠 공간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 외야의 자유로운 좌석 배치,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연결 등의 콘텐츠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짐으로써 스포츠 공간 문화 가치가 가득 채워졌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스포츠 공간 문화들이 이곳, 창원NC파크에 쌓일지 기대된다.



삼성라이온즈파크는 거의 모든 공간이 구단 상징 컬러인 파랑으로 덮여 있다

연결(Connection)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관계’라는 용어를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한다. 스포츠 공간 문화의 최종 지점은 만남을 통한 연결이다. 스포츠 공간을 통한 연결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스포츠 공간에서는 ‘새로운 공간 문화와의 만남’ ‘타인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로운 공간 문화와의 만남은 앞서 언급한 공간이 갖는 이미지와 디자인, 외형 등 물리적 요소들을 말한다. 인식하지 못한 공간을 경험해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 둘째, 타인과의 만남이다. ‘만남’에서는 타인과 공유 가치를 강조하며 서로를 이해한다. 특히 요즘은 환경, 배려, 지속가능성 등 공식적 언어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가치가 있다. 셋째, 자신과의 만남이다. 앞의 두 가지 만남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포츠

공간 문화 체득 과정을 통해 자신 내부의 심리적 공간을 찾는다는 것이다. ‘연결’을 강조하는 국내 프로야구장을 살펴본다.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인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파란색을 강조한다. 파란색은 이곳을 찾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한다. 특히하게도 이 야구장은 팔각형을 기본으로 디자인됐는데 계단, 벽, 천장, 콘코스 어디에서든 파란색을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파란색이 삼성라이온즈의 팀 컬러라는 것이다. 야구장 곳곳의 파란색은 상징 그 이상의 프라이드일 것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열정으로 무장했다. 이 구단의 상징 컬러는 빨강이다. 연고지인 광주 지역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사연이 많은 야구장으로 느껴진다. 사연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공간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지역과 연결하고 야구

팬들의 염원을 담아 야구라는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은 인지와 집중을 요구한다. 인지와 집중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적 맥락이 필수적이다. 스포츠 공간의 지속가능성은 어떤 문화적 이야기들로 공간을 채울 것인가에 달렸다. 스포츠 공간에서 언어의 소리를 관찰하고 공간의 리듬을 경험해 다수의 소리가 부딪치는 문화적 지점을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접근을 수용할 때다. 무엇보다 대규모 현대식 건축을 논하기 전에 무엇으로 이 공간들을 채울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

글을 쓴 최윤석은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조직문화와 스포츠공간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취미이자 연구와 강의에 좋은 재료인 트레킹, 트레일 러닝, 바다 수영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의 체득을 강조하고 그 가치 영역의 확대를 문화로 연결하고자 노력한다.

모두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경기장

우리는 가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한다. 기술 혁신이 사회를 주도하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기장도 미래적인(Futuristic) 건축물의 모습에 자주 대입된다. 또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들이 우리가 경기장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상상도 할 수 있다.



팬 경험의 진화

미래 기술로 가득한 경기장.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경기장의 모습일까? 거실의 편안함과 경기 장면을 더 잘 전달하는 TV를 뒤로 하고 우리는 왜 경기장에 가는 걸까? 경기장은 스포츠 팬들만을 위한 공간인가? 경기장이 우리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고민과 대답이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주지 않을까 싶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경기장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 멀티플렉스극장 등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이에서 행복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오늘날 경기장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실(Living Room)이다. 팬들을 거실의 편안함과 멋진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OTT 플랫폼에서 벗어나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욱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어쩌면 모든 물리적 공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실과 경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래에 가상현실이 완벽히 구현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접해질수록 이 경쟁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스포츠 관람은 필드 또는 코트에서 일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기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는 선수들의 경기 장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팬들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소속감 등 많은 행위와 감정의 공유가 필드 바깥에서 이뤄진다. 나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같은 목소리를 외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경험인가.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경기장을 찾는다. 팀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선수를 보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라이브이벤트 경험을 위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미래가 되고 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편안함, 더 크고 좋은 화질의 스크린, 더 좋은 사

운드, 더 많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경기장에서 얻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거실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미래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미래에는 거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경기장에서 경험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경험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처럼 거실이 아닌 경기장에서의 팬 경험과 기대, 요구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진정성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행할 수 있는 제품과 문화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그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옛 이름 '라스 아부 아부드 스타디움')는 974개의 재활용 운송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임시 축구 경기장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경기장을 개방했다

런 것들을 만들어 세계로 전파시키는 노력이 이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맥락(Context)과 정체성(Identity)이 무시되고 획일화된(Homogenized) 문화가 여러 지역을 지배하는(Dominant) 경우가 많았다. 경기장도 스포츠 문화가 조금 더 앞서 발전된 나라와 지역의 경기장이 최고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들이 마치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좋은 경기장이 될 것으로 착각한다. 경기장은 그 지역의 스포츠 문화를 담은 그릇(Container)이다. 같은 종목의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의 성격과 문화가 다르고 스포츠 콘텐츠를 소화하는 방식도 다르다. 앞서 팬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경기장을 찾았다고 했듯이 지역에 따라 이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 과연 최고의 MLB 스타디움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지어진다면 이 또한 최고의 KBO 스타디움이 될 수 있을까? 세계화에 대한 반발(Backlash)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역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팬들은 뿌리 깊은 지역 전통과 문화, 지역 사회의 독특한 감성을 반영하는 경험을 기대한다. 미래의 경기장이 나아가갈 방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라 '그 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진정한 경기장(Authentic Stadium)'이다. 문화적 비컨(Beacon)으로서 일률적인 모습을 벗어나 그 지역만의 스포츠 문화를 담고, 그 지역 팬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경기장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진정한 경험(Authentic Experience)'이 미래의 경기장을 정의할 수 있다.

지역 자산(Community Asset)

경기장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 재생과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미 많은 경기장들이 주거, 상업,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과 함께 개발돼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장은 스포츠 팬들만을 위한 시설로 자주 인식된다. 특히 일 년 중 제한적인 일수에만 특정 종목의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은 때론 많은 지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경기장은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지역민

들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미래가 밝아진다. 경기장 전체든 일부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의 스포츠 이외에도 지역을 위한 행사가 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기장과 주변이 함께 지역 사회의 경제와 생활 환경을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그 속에서 미래 경기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경기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친환경 건축 기술의 적용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잠시 쓰고 버려지는 경기장은 우리 사회에 큰 공해가 된다. 미

래의 경기장은 우리의 이웃이 돼야 하고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늘 머무는 거실과 같은 공간이어야 한다. 경기장은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 문화 속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시대에 따라 다른 역할로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었다. 경기장은 현재도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모두 지닌 상태로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물리적인 스포츠 공간을 대체하는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아무리 미래에 기술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는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경기장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에 의해 그 모습이 바뀌기보다 경험의 진화에 따라 그 모습을 서서히 바꿔 나갈 것이다. 결국 미래의 경기장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경험과 함께 진화해 나간다. ✨

글을 쓴 정성훈은 현재 미국 피츠버그에서 스포츠건축가로 활동한다. 어릴 때부터 열광적이었던 스포츠와 '어쩌다' 전공하게 된 건축을 같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프로팀 구단주가 되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건축가보다 체육인으로 불리는 걸 즐기고, 가끔 스포츠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고 스포츠 관련 매체에 기고도 한다. 주 활동영역은 미국이지만 현재 SSG 랜더스 청라돔구장 디자인을 총괄한다.

한강과 산

한강 주변에는 산책길을 품은 작은 산이 많다. 어느 곳은 짧게 올라서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어떤 길은 시간을 내어 구불구불 숲길을 올라가야 만나는 전망대도 있다. 물을 찾아, 산을 찾아 숲으로 올라가 보자.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자연이 한가득이다.



개화산
강서구 방화동
약 128m

치현산
강서구 방화동
약 70m

공산
강서구 가양동
약 74m

증미산
강서구 염창동
약 55m

상암산
마포구 상암동
약 96m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약 262m

매봉산
중구 신당동
약 236m

달맞이봉
성동구 옥수동
약 85m

응봉산
성동구 금호동4가
약 96m

아차산
광진구 중곡동
약 295m

서달산
동작구 상도동
약 179m

우면산
서초구 서초동
약 293m

구룡산
서초구 염곡동
약 306m



‘개화산 숲길’로도 불리는 강서둘레길1코스를 따라 걸으면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데크가 나온다

한강의 끝자락, 개화산

개화산은 서울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산이다.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로 나와 개화초등학교 옆길로 접어들면 개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강서둘레길이 나온다. 개화산숲길로도 불리는 강서둘레길에는 1, 2, 3코스가 있다. 이 중 제1코스를 함께 올라 보자. 조금 더 쉽게 오르고 싶다면 코스 근처에 있는 ‘약사사’라는 사찰에서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사사까지는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개화산 정상까지는 매우 가깝다. 약사사 앞에 주차하고 일주문을 바라보며 오른쪽 숲길로 접어든다. 그곳에서 200m가량 더 올라가면 개화산 정상에 도착한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로 나와 방화근린공원에서 시작하는 코스도 있으니 다양한 시작점에서 강서둘레길을 만끽하길 바란다.

좁은 숲길을 벗어나 탁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나? 제대로 찾아왔다. 너른 광장 같은 정상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두 군데의 전망 데크가 있다. 조금 더 아래쪽에도 데크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은 갑갑한 마음을 뺄 뚫리게 한다. 개화산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에는 여의도와 합정동 일대가 훤히 보인다. 겹겹이 붉은빛 가로등이 켜진 다리들도 보인다. 그중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다리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경기 고양시 강매동을 잇는 방화대교다. 데크 전망대에 올라서면 정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은 흡사 영화 <인터스텔라(2014)>에 나오는 블랙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전망 데크에는 지붕이 있는 정자가 있다. 소풍하듯 간단한 음식을 챙겨 오르면 한강의 장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다. 개화산 정상은 매우 넓은 데다가 갈림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산길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는 자칫 헤맬 수 있겠다. 따라서 개화산이 처음 이라면 하산할 때는 약사사를 거쳐 내려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 코스는 길의 폭도 넓고 가로등이 있어 안

전하다.

한편 개화산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 당시 남한군과 북한군의 격전지였으며 현재는 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지로 사용된다고 한다. 실제로 개화산에는 탱크가 주둔하던 방머막과 참호 시설이 곳곳에 남아 있다.

한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기도 해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인 요충지다. 이러한 이유로 개화산은 행주산성의 덕양산과 함께 한강 하구를 지키는 요새 역할을 했다.

“소풍하듯 간단한 음식을 챙겨 오르면 한강의 장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다”



서울둘레길 6코스에서 만나는 증미산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무척이나 길다. 어느 장소에서 한강을 보느냐에 따라 한강은 가지각색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강의 야경도 마찬가지다. 한강의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증미산이 딱이다. 증미산 전망대는 서울둘레길 6코스에서 만나는 곳으로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공원이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증미산, 증미산 전망대까지 어떻게 가면 될까? 증미역 2번 출구로 나와 증미역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약 200m 걸어가면 가양9단지 사거리 끝에 성은교회가 보인다. 성은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염창산둘레길 이정표를 보고 숲길로 접어들면 된다. ‘증미산에 가는데 웬 염창산둘레길?’ 하며 의문을 품는 이가 분명 있을 테다. 증미산은 조선 시대에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염창산(鹽倉山)이라 불리기도 했다. 산 이름이 증미산인데 막상 가면 이정표에 ‘염창산둘레길’이라고 표기된 이유다. 숲길로 접어들면 좁은 오솔길이 여기저기로 갈라져 있다. 진입로



무장애길인 개화산숲길은 유아차와 휠체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에서 계단을 오르면 양쪽으로 이어진 증미산둘레길이 있고 직진해 계단으로 올라가면 증미산 전망대로 바로 향한다. 사실 어떠한 길을 선택해도 전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증미산 산자락을 따라 뽀뽀한 숲길을 걸어보자. 여름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봄과 가을에는 숲길 옆에 다양한 야생화가 준비하게 피어난다. 전망대에 다다르면 가장 먼저 흔들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소나무 아래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자. 정면에는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른쪽으로는 월드컵대교는 물론 저 멀리 성수대교까지 보인다. 해가 지면 한강의 다리들은 일제히 붉은색의 가로등을 켜고 아름다운 야경을 만든다. 증미산 전망대는 접근성이 좋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화려한 장관에 비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다. 개화산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도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증미산 전망대에 오르면 월드컵대교와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한강 불꽃쇼 직관 1번지, 서달산과 거북바위 전망대

걷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걷기 좋은 숲길은 어떤가? 단순히 걷기 좋은 것이 아니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갖춰져 있다. 한강을 가까이 하면서 걷기까지 좋은 산을 꼽으라면 동작충효길에 있는 고구동산과 서달산을 바로 추천하겠다. 뽀뽀한 잣나무 숲과 숲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테크가 잘 조성돼 있다. 곳곳에 벤치도 있어 걸다가 지칠 때



서달산은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산으로 국립현충원을 에워싸고 있다

한숨 돌리기 좋다. 특히 달마사와 연결된 거북바위 전망대는 한강을 조망하는 최적의 장소다. 달마사는 서달산 기슭에 자리 잡은 비구니 스님의 수련도량으로 동작충효길에 있는 정자인 동작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산 중턱에 거북바위와 아미타불이 있는 곳에 테크 시설을 해놓았는데 오히려 한강을 내려다보는 최적의 전망 장소가 됐다.

이곳을 찾아가려면 지하철 9호선 노들역 4번 출구로 나와 상도터널 방향으로 약 100m 직진해야 한다. 그럼 오른쪽에 계단으로 된 산책길 초입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 시작해 동작충효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고구동산을 거쳐서 서달산 정상인 동작대까지 갈 수 있다. 이 모든 코스는 도보로 대략 1시간 소요된다. 만약 조금 더 짧게, 산책하듯 걷고 곧장 전망대로 가고 싶다면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송실대학교 옆길을 따라 700m 정도 올라간다. 송실대학교 옆길 끝에서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면 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가 나온다. 그 옆길로 들어가면 서달산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출발해 보자. 테크 승터와 잣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테크길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직진하면 오르막 없는 평이한 산책길을 통해 잣나무에서 풍기는 상쾌한 피톤치드 향을 느낄 수 있다. 테크길 끝자락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만나는 곳에서 오른쪽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부드럽고 편하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서달산 정상으로 가려는 이유는 오로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할 만큼 그 모습이 감히 장관이다. 이곳 전망대는 한강 불꽃놀이 가 펼쳐질 때 감상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서달산에서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동작대교와 거북바위 전망대도 유명하다. 특히 거북바위 전망대는 단연 최고의 전망을 선사한다. 여의도 주변과 한강 중심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한강대교의 아치고



한강을 바라보는 거북바위를 보러 서달산에 있는 달마사를 찾는 이도 많다



화관 IMAX처럼 다가오는 곳이다. 남산에는 여러 군데에 전망대가 있다. 가장 멋지고 서울 전체를 파노라마 화면처럼 볼 수 있는 곳은 남산타워 바로 옆에 있는 ‘남산공원사랑의열쇠광장’ 전망대다. 좀 더 한적하게 한강 일대의 풍경을 바라보고 싶다면 남산 남측 순환로에 있는 전망 데크를 추천한다.

남산둘레길만큼 남산타워도 명소다. 가장 빠르게 남산타워로 이동하는 방법은 남산 돈가스 식당이 즐비한 회현동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남산 정상에서 계단을 올라 팔각정을 거치면 사랑의열쇠광장으로 갈 수 있으며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다. 이 전망대에서는 서울의 도심 풍경과 한강 풍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도심의 야경이 빌딩 조명으로 가득해 산만하다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야경은 웬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며 진득한 감상에 젖게 된다. 한강 뒤편으로 어둡게 보이는 관악산과 대모산, 구룡산이 병풍을 쳐놓은 것처럼 둘러싸고 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여느 전망대보다 한강을 바라보는 풍경도



남산둘레길은 봄이면 '벚꽃둘레길'로, 가을에는 '단풍둘레길'로도 유명하다

가 멋있게 보이는 장소다. 거북바위 전망대는 달마사 사찰 안에 있는 시설로 거북바위와 부처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절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지만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 찾는 시민들도 많다. 이 코스는 잣나무 숲에서 자연의 향을 맡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해가 지면 전망대로 올라가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반나절 코스다.

가을을 통째로 담은 남산

앞선 코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더해 한강을 마주하고 싶다면 남산둘레길이 제격이다. 한강에서 가까운 데다가 높이 약 262m로 나름 높은 산에 속하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마치 영

“
 나름 높은 산에 속하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마치 영화관 IMAX처럼
 다가오는 곳이다
 ”



무척 넓다. 왼쪽 방향에 있는 성수대교부터 시작해 오른쪽 방향에 있는 양화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한강 일대를 조금 더 가깝고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남산타워에서 남산순환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으로 내려와 남측 순환로 방향으로 따라 내려가면 된다. 10분 정도 걸으면 오른쪽에 너른 데크가 있는데 인적도 많지 않아 여유롭게 사진 찍으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다.

데크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한남대교와 강남이, 오른쪽에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가 보인다. 붉은 조명이 가득한 한강 일대의 야경은 아름답고 화려하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전망 데크가 하나 더 있어 한강

은 가까워지지만 울창한 소나무 숲이 시야를 가린다. 이외에도 남산은 즐길 거리가 가득해 외국인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맞은편에 있는 남산야외식물원은 도심 속 힐링 장소이며 최근에는 서울과학전시관 옆으로 한양도성유적전시관이 조성돼 남산에 남아 있는 한양도성의 유적과 일제강점기에 축성된 조선신궁의 배전터도 만날 수 있다. ☎

글을 쓴 강세훈은 한국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걷기 시작해 전국의 아름다운 임도와 숲길을 소개하는 것이 계기가 돼 길 여행가가 됐다. 숲과 도심 속 둘레길에 있는 문화와 역사 해설을 겸하고 있으며 현재는 길에서 경험하는 재미 있는 인문학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길을 답사하고 있다.



한강의 야경을 품은 서울의 산들

무엇이든 바쁘고 빠른 서울이지만 산에 올라 낚 놓고 한강의 낮과 밤을 바라볼 때
또는 한강에서 산으로, 산에서 한강으로 향할 때면 어쩐지 시간은 여유롭게 흐른다.
그것뿐이라. 마음에 크게 자리했던 걱정은 아주 작은 일이 되고야 만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산으로 나아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자.
빼곡한 도심에 펼쳐진 서울의 한강과 산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린다.



응봉산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바위산으로 '작은 매봉'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시야를 가로막는 빌딩이 없어 가까이에서 한강을 볼 수 있다. 성수대교 등 한강의 대교도 잘 보여 인근의 매봉산과 함께 야경 스팟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봄에는 활짝 핀 개나리를 보러 찾는 시민도 많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에서 약 900m만 걸으면 쉽게 응봉산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숲에서도 가깝다. 무지개터널을 지나 용비교를 건너면 응봉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잘 조성되어 같이 둘러보기에 좋다.

아차산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를 아우르는 산이다. 북쪽으로 용마산이 이어져서 용마산의 용마봉과 연계한 산행 코스가 많다. 약 295m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등산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아차산 기슭에는 생태공원인 어울림정원도 조성돼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많이 찾는다. 새해에는 인근 주민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희망을 품고 오르기도 한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또는 **7호선 용마산역**에서 입구까지도 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주민들은 한강의 대교들이 뿜어내는 야경과 롯데타워 야경을 보러 야간에도 많이 오른다.

매봉산

'매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원도 홍천군 서면 등 전국 각 곳에 있다. 하지만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자리한 매봉산이다. 이 매봉산은 서울 중구 신당동과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에 걸쳐 있는데 북쪽, 즉 정상은 중구 신당동에 자리한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서 약 580m 정도 걸어가면 매봉산 입구를 찾을 수 있다. 이곳의 매봉산은 응봉산만큼이나 서울 야경 명소로 유명인데, 코스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봉산으로 야간 산책을 떠나는 이도 많다.

상암산(하늘공원, 노을공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산에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유아숲체험원이 있어 날씨 좋은 날,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며 공원에 오르면 가까이에서 한강 조망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하늘공원은 10월이 되면 서울 역사축제를 열어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며, 노을공원은 이름처럼 노을 전망이 아름다운 곳이다. 더위가 꺾이고 가을이 찾아왔다. 상암산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역사와 노을을 즐겨보자.



©동아일보DB



©서울관광재단



©shutterstock



©동아일보DB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체육 70년을 빛낸 스포츠 레전드들의 역사 속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로 복귀한 후인정 선수(가장 왼쪽)는 주장으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함께할 모든 날

KB스타즈 배구단 후인정 감독

명함에 새겨진 회사 이름을 지웠을 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름 석 자.
단지 이름만으로 우린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선수에서 코치, 코치에서 감독까지. 직업과 소속 팀이 수없이 바뀌어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내는 사람이 있다.
'후인정', 그 이름 옆에 한결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으니, '배구'다.



후인정 감독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빨강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원을 그린 채 어깨동무하고 있다. 열 명 안팎의 선수가 하나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 손가락과 손목에 파스를 붙였어도, 붕대를 감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저 서로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있는 힘껏 기쁨을 만끽하기 바쁘다. 그중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이가 있다. 숫자 '9'와 태극마크가 돋보이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사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9번 선수가 감독님이시죠?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우리 배구 국가대표팀의 금메달이 확정됐을 때예요. 1995년부터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0 시드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팀에서 나왔어요. 5년 후인 2006년에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된 건데 솔직히 부담이 꽤 컸어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은 금메달 2연패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더구나 제가 팀 주장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함께했던 동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뚝뚝 뭉쳐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2006 도하 아시안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대회인가요?
물론 잊을 수 없는 대회 중 하나지만 아무래도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FISU) 주최로 1995년에 열렸던 세계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태극 마크를 달고 우승을 했던 첫 번째 국제대회였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우승까지 했으니 아주 기뻐요(웃음).

후인정의 '배구 외길'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배구 실업 선수였던 아버지 후국기 덕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했던 플레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했던 선수였음을 아들은 확신한다.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 본인 역시 그 모습을 본받아 배구 선수 중 최고가 되고자 했다.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배구는 어린 시절, 후인정 학생에게 어떤 스포츠였나요?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이 월등하지는 않았지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기억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아들인 제게도 자연스럽게 투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과, 선배들과 같이 배구 코트 위에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같이 운동했던 게 그저 좋았어요.





인창고등학교 소속 팀 시절에 공격수로 전향하셨죠? ⚡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세터였어요. 대학부와 연습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감독님이 엄청 화냈을 정도로 공격수였던 3학년 선배가 실력 발휘를 못했고, 그 선배 대신 저를 공격수로 투입하셨어요. 경기가 끝나고 감독님께서 세타보다 공격수가 더 적합한 것 같이라며 전향 의사를 물으셨어요. 그때를 계기로 3학년부터 공격수 포지션을 맡았죠.

아버지 후국기 선수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던 ‘나의 처음’을 토닥여줬던 인창고등학교 1학년 선배, ‘나의 강점’을 알아채고 지지해줬던 학창 시절 감독까지. 어쩌면 배구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이쁨이 지금의 후인정 감독을 있게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배구 외길이 꽃길이었다.

배구로 유명한 서울 인창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국내 배구 명문 중·고등학교 하면 서울 인창중·고등학교였어요. 특히 인창고등학교는 배구 역사로만으로도 1, 2등 하는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 유명한 선수도 많이 배출했구요. 저 역시도 배구를 하려고 인창중·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어요. 만약 농구 종목을 선택했다면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을까요?(웃음)

서울 인창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배구를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 처음부터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배구부에 들어갔을 때는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인창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한 선배가 찾아와서 위로도 많이 해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선배가 건넨 위로의 힘 덕분에 지금까지 배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현대캐피탈 소속 시절, 은퇴도 고려하셨다고요? ⚡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 보니 힘들었어요. 우승이 코앞까지 왔는데 번번이 좌절되다 보니 지쳤죠. 초반 2~3년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로 마음을 더 굳게 먹곤 했는데 5~6년이 지나니 트라우마가 됐어요. 특히 삼성화재팀만 만나면 경기 전날엔 잠도 오지 않고, 시합에선 경기력도 안 났어요. 긴장이 많이 되니까요.

힘든 시절을 지나 2005~2006 V-리그 시즌 때 팀 우승은 물론 MVP로도 선정되었어요. ⚡ 그해에 배구가 프로로 출범하면서 현대캐피탈에 김호철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타이밍에 ‘그래도 더 힘내서 해보자!’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웃음). 그러다 보니 MVP라는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다음 해인 2006~2007시즌에도 팀이 우승하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도 못하고 은퇴하는 줄 알았는데...



“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국내 배구
명문 중·고등학교 하면
서울 인창중·고등학교였어요
”

1990년, 청소년 소속 팀 선수로 활약했던 인창고등학교 시절부터 경기대학교,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 생활까지. 약 25년을 현역 선수로 활동한 그는 2015년, 배구 코트 바깥으로 나왔다. 한국전력과 경기대학교 지도자를 거쳐 2021년, 프로배구단 KB손해보험 스타즈의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스스로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선수들이 ‘형님’이라고 편히 부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선수들이 최대한 편안한 마음과 상태로 경기를 뛰어야 연습량도 늘고, 좋은 실력이 나와요. 하지만 선수들도 분명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구단 소속 선수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저뿐만 아니라 코치 스태프들이 편하게 해주고, 자율적인 훈련을 많이 도입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고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70년처럼 앞으로의 80년, 90년, 100년도 승승장구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체육회가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체육 꿈나무들의 성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퇴약별이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한여름에 만난 후인정 감독은 무더위도 잊게 했다. 온화한 미소와 점잖은 말투에 깃든 힘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다. 흐트러짐 없이 꼳꼳한 자세를 통과해 쏟아져 나오는 학생선수·프로선수 때의 이야기에는 배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소속 선수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그 사랑을 나눈다. 후인정 감독이다. ⚡

미국에서 온 데빈이 들려주는 서울의 트레일 러닝

데빈이 서울에 보금자리를 틀게 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서울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직장도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이젠 가족도 함께한다. 데빈의 모든 것이 있는 서울.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 등산과 러닝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반가워요! 미국에서 온 데빈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국제 비즈니스 개발 분야에서 한국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회사와 협력하는 일을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요즘에는 트레일 러닝에 푹 빠졌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Devin from the United States. I came to Seoul to do an M.B.A. at Yonsei University. Now, I work in cooperation with the company to establish and operate a Korean busines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I like various sports, but I often do trail running these days.”



서울에서 자주 오르는 산이 있나요?

인왕산과 남산, 북악산에 많이 가요. 지금 살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이전에는 종로구 사직동에서 살았어요. 인왕산은 그 시절에 많이 갔고요. 남산과 북악산, 북한산도 좋습니다. 서울 바깥에서는 한라산, 설악산도 올랐어요. 아직 시도해 보지 못한 산들이 많아서 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자주 운동하시나요?

매일 아침에 달리기를 해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한강이 있어서 아침 7시까지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고요. 요즘에는 달리기, 등산, 헬스장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차차 회복 중이에요. 저의 오래된 친구인 스포츠를 되찾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죠.

Where do you often go hiking in Seoul?

I go to Inwangsan Mountain, Namsan Mountain, and Bukaksan Mountain a lot. Now I live in Mapo-gu, but I have lived in Jongno-gu. Namsan Mountain and Bukaksan Mountain are also good. Bukhansan Mountain, which is near Seoul, also climbs often. I also experienced Hallasan Mountain and Seoraksan Mountain outside of Seoul. There are many mountains I haven't tried yet, so I try to be more diligent.

How often do you exercise?

I run every morning. The Han River is relatively close to my house, so I start my day by running until 7 a.m. I go to the gym in the evening. These days, I focus on three things: running, hiking, and gym. There were a lot of restrictions due to COVID-19, but I'm gradually recovering. Buying time to get my old friend, sport back.



2022 대한민국 50K에 참여한 데빈(왼쪽)

©HANJAEHOON

이번에 2023 서울 국제올트라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하시죠?

맞아요. 10월 21일에 열리는 대회에 50K 코스에 도전해요. 이 대회는 처음이에요.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작년엔 서울이 아닌 경기도 동두천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50K에서 10K 코스에 도전한 게 유일하죠. 제게 이번 대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거예요.

달리기, 등산, 헬스 외에 다른 운동도 하나요?

사실 제 주 종목은 축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즐겼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못한 지 꽤 됐어요. 워낙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축구뿐 아니라 수영, 라크로스, 농구, 야구, 서핑, 스노보드, 무술 등 많은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려고 노력해요.

Are you participating in the 2023 Seoul 100K?

That's right. I'm challenging the 50k course for the competition on October 21. It's my first time in this competition. It hasn't been long since I started trail learning. Last year, The only time I challenged the 10K course at the 2022 Korea 50K held in Dongducheon-si, Gyeonggi-do. Seoul 100K will be a new challenge.

Do you do other sports besides running and hiking and fitness?

Actually, my main sport is soccer. I've enjoyed soccer since I was young. However, after coming to Korea, the COVID-19 situation became serious, so I couldn't play soccer often. I really love sports. I try to challenge many sports such as swimming, lacrosse, basketball, baseball, surfing, snowboarding, and martial arts.

운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데빈

데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데빈은 전공을 살려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의 스타트업과 협력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을 컨설팅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조력하는 일. 그것은 비단 데빈이 고객에게만 적용하는 일은 아니다. 데빈은 자신의 성장도 중요시한다. 데빈은 스포츠를 사랑한다고 했다. 축구가 시작이다. 어린 데빈의 넘치는 에너지를 잠재우기 위해 데빈의 부모님은 그에게 축구를 시켰다. 축구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면 한두 시간 정도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부모님의 선택이 데빈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렇게 축구에 빠지게 된 데빈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매일 노력했다. 스포츠 세계에 초대된 부모님처럼 데빈은 본인의 아들도 스포츠 세계로 초대했다. 많이 어려서 난도 있는 산은 같이 오르지 못하지만 인왕산자락길처럼 쉬운 코스는 함께 오르려고 노력한다. 축구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 집중하며 본격적으로 운동을 취미로 삼기 시작했다. 어떤 종목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면 일단 집중하는 것이다. 계속 뚫어오르는 도전 정신을 잠재우는 게 있었으니 바로 코로나19였다. 팀 스포츠인 축구로 운동을 시작한 데빈에겐 개인 스포츠보다 팀 스포츠가 훨씬 흥미로웠다. 한국에 와서도 축구를 놓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도 팀 스포츠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개인 스포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트레일 러닝도 그중 하나이다.

끝나지 않은 도전, 이번에는 서울 100K

데빈은 역동적인 스포츠에 더 끌린다고 했다. 트레일 러닝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도 이 때문이다. 데빈은 도로나 서울의 대교에서 자동차들과 나란히 달리는 것이 지루했다. 도로와 자동차가 아닌 강과 숲, 산을 배경삼아 달리는 것, 즉 트레일 러닝이야말로



데빈은 종종 어린 아들과 산에 오른다

‘나’를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자연에서 달리는 일은 주위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맡고, 듣기 때문에 평범한 달리기와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트레일 러닝을 소개했다. 데빈은 가족과 트레일 러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어 서울의 인왕산을 종종 찾았다. 특히 어린 아들과는 평이한 코스인 인왕산자락길을 자주 올랐다.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았지만 대회 경험도 있다. 데빈은 그때 대회로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했는지 깨달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활력을 얻어 달리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서울 100K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데빈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데빈이 지금까지 가장 멀리 달린 기록은 12.5K이지만 동기부여를 위해 서울 100K에서 10K 코스가 아닌 50K에 도전한다. 50K 코스는 10월 21일 오전 5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종료되지만 데빈은 10시간 이내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달리며 등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사히 완주한다면 그것 역시 행복할 것이라고 데빈은 말했다. ✨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제1회 동덕 배

2023. 07. 03. (월) - 07. 03. (월) 장소



배구할 결심, 1학기의 결심

동덕여자고등학교 장효원 교사

“일요일에도 학교 체육관에서 다 같이 연습했어요.” 주변 풍경이 초록으로 질어질 때 즈음 찾은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11반 주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토닥이며 이끌었던 장효원 교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학교 체육 수업을 넘어 학교 축제가 된 동덕 배구 챔피언십 현장이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학생들이 코트 위 친구들에게 힘껏 응원을 보내고 있다

“ 동덕여자고등학교 정문의 풍경이 흑백 장면만큼이나 고요했다면 체육관 풍경은 세상의 모든 빛깔을 뿔뿔히 뿜어내기라도 하듯 생생하기만 했다 ”

제1회 동덕 배구 챔피언십 개최
동덕여자고등학교에 도착해 체육관 문을 열었을 때, 영화 <오즈의 마법사(1939)>가 떠올랐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어딘가에 도착한 장면이 흑백으로 연출된다. 도로시가 눈을 뜨자 화면은 컬러로 전환되며 환상의 나라 ‘오즈’가 펼쳐진다. 학교 정문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한 그때, 마치 도로시가 돼 환상의 나라 오즈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정문의 풍경이 흑백 장면만큼이나 고요했다면 체육관 풍경은 세상의 모든 빛깔을 뿔뿔히 뿜어내기라도 하듯 생생하기만 했다. 발걸음을 체육관에 들여놓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배구 코트였다. 수많은 배구공이 센터라인 위로 펼쳐진 네트를 가볍게 넘나들었다. 반대편 코트로 넘어간 배구공은 학생의 시뻘개진 손에 닿자마자 다시 ‘뽕’ 소리를 내며 반대편 코트로 향한다. 체육관 가장자리에 양옆으로 늘어진 좌석에는 교복도, 학교 체육복도 아닌 스포츠 의류, 육군 군복, 해병대 군복 등을 입은 학생들이 앉아 있다. 두 귀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흥이 절로 나는 최신 가요들을 빠르게 주워 담았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정문의 풍경이 흑백 장면만큼이나 고요했다면 체육관 풍경은 세상의 모든 빛깔을 뿔뿔히 뿜어내기라도 하듯 생생하기만 했다.



장효원 교사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팀 인원을 11명으로 구성했다



챔피언십을 거머쥐기 위한 학생들의 열기가 동덕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듣지 못했을 최신 가요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학생들과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경기장 앞에 놓인 생수와 얼음 등등. 눈앞의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니 영락없는 체육대회다. 개성 넘치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학급의 단합력을 높이는 학생들, 화려한 페이스페인팅으로 상대 팀의 기선을 잡는 학생들, 본 경기를 앞두고 몸 푸는 학생들, 체육관 바닥과 운동화 밑창이 부딪쳐 일으키는 마찰음까지.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1학기 끝자락, 동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챔피언십(Championship)'을 차지하기 위해 책상이 아닌 배구 코트 위로 모여들었다. 그 이름이 바로 '제1회 동덕 배구 챔피언십'이다. 5일 동안 2, 3교시에 열린 1학년 학급 대항 배구 대회다.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잔뜩 긴장했던 근육과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방학으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체육 시간에 쌓은 배구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마스크 벗고 체육관에서 마주한 친구들

장효원 교사와 1학년 담당 교사들은 1학기 동안 학생들이 배구를 향해 보인 '진심'을 진작에 눈치챘다. 학생들이 배구를 시작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장효원 교사는 배구 수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목표를 이룬 셈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여론에서는 엔데믹 전환 소식으로 들끓었

을 때, 교육 현장의 큰 이슈는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이었다. 1학기 시작을 앞뒀을 때 장효원 교사에게 이 이슈는 더욱 남다르게 다가왔다. 올해 1학년을 담당하게 됐는데 2023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조금 특별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중학교 3년 내내 마스크 생활을 했다.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오래 기억에 남을 학창 시절 추억도 간직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마스크에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녔던 게 일상이었던 탓일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생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입이 보이지 않으니 말보다는 고갯짓으로 하는 대답이 이들에게는 더 익숙했다.

장효원 교사와 동료 교사들은 '사회성 회복'을 1학기 수업의 주요 키워드로 삼았다. 사회성 회복을 목표로 1학년 스포츠 종목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배구다. '사회성 회복'에 '배구'라. 배구는 개인 종목이 아닌 팀 스포츠다. 개인의 운동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 협력의 정도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장효원 교사는 배구를 '잘하는 것'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경기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사회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동덕여자고등학교 1학년의 배구 생활이 시작됐다. 장효원 교사는 1학년 전교생을 대상

“ 장효원 교사는 배구를 ‘잘하는 것’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경기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사회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

으로 배구 종목을 가르쳤다. 장효원 교사의 열심 덕분인지 학생들은 배구공과 빠르게 친해졌고 배구를 알면 알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커졌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열정은 큰 덩어리가 됐고 결국 교과 과정에는 없는, 동덕여자고등학교만의 작은 이벤트인 '동덕 배구 챔피언십'이 탄생한 것이다.

스포츠로 뚫뚫 뭉치는 우리 반

그 현장에 있으니 1학기 동안 열심히 배구 코트를 누볐을 학생들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다. 곧 열릴 경기에 출전할 1학년 11반과 12반 학생들을 코트 위로 부르는 교사들. 이들의 열정 어린 눈빛과 당당한 발걸음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그간의 나날들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했다.

경기가 시작됐다. 각자 맡은 포지션대로 코트 위에 자리를 잡고, 경기에 집중하는 학생들이다. 코트 안팎의 열정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경기 못지않았다. 라인 바깥은 경기를 뛰지 않는 학생들이 각종 응원 도구와 플래카드를 준비해 목청껏 응원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반 학생들 사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담임 선생님이 보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장효원 교사가 1학기 배구 수업 목표로 삼았던 '사회성 회복'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두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코트 위 학생들은 경기 중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배구공을 놓치거나 서브에 실패하면 탓하는 것이 아닌 "괜찮아, 괜찮아"를, 점수를 내거나 무언가를 해낸 친구에게는 "정말 잘했어!"를 주고받았다. 배구공이 근처에 올 때면 "마이!"를 외치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장효원 교사는 "친구들과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학급 내 유대감이 형성된다"



경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배구공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

라며 "학기 초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배구 수업을 진행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체육관에 가득했다"고 전했다. 코트 안팎의 학생들 소리가 아름답게만 들린 것은 장효원 교사만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보다 못해도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 다른 친구보다 잘해도 과시하지 않고 경기를 이끄는 학생들.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만큼 최선을 다하며 외치고 움직이는 학생들이 함께 내는 소리는 동덕여자고등학교 온 곳에 울려 2, 3학년 전교생, 그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끊이지 않게 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스포츠 세계대전이 된 청소년들의 놀이터, 브레이킹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게임 시즌 2'가 곧 방영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한국적 감성으로 제작된 한국어 바탕의 이 드라마가 이토록 전 세계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렸을 때 누구나 해봤을 익숙한 놀이들이 전 지구적인 사랑을 받다니! 이처럼 하나의 놀이로 시작한 문화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것이 하나 더 있다. 이번에는 브레이킹이다.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네 청소년, 청년들이 향유하던 소수의 문화(흔히 언더그라운드, 혹은 서브 컬처로 불리기도 한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인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서핑과 스

케이트보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갈수록 시들해지는 스포츠의 인기와 고령화돼 가는 스포츠 향유 연령층을 제고하기 위해 묘안을 짰는데 바로 개최국에 종목 선정권을 부여해 5개 종목에 한해서 자국민의 스포츠 인기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듬하여 올림픽 어젠다 2020. 일본은 야구 및 소프트볼, 가라데,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스케이트보드를 채택했다. 종목이 선정되는 기준은 '신선한가?'이다. 새로운 물결을 인정하고 독려하겠다는 의지다. 그만큼 IOC는 젊은 층의 유입과 스포츠 인기의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던 중 IOC 탐색망에 잡힌 새로운 형태의 경기가 있었다. 분명 역동적이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요구하지만 스포츠라고 단언하기에는 무언가 철학적인, 하지만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인고의 노력이 필요한 경기. 브레이킹은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5개 종목 중 하나가 됐다.

브레이킹의 기원

브레이킹은 우리가 흔히 브레이크댄스, 혹은 비보잉으로도 알고 있는 '춤'이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를 거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댄스'라는 단어와 성평등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보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초기에 사용했던 단어인 '브레이킹'으로 표준화됐다. 브레이킹은 놀이 문화로 시작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꽤 거슬러 올라가지만(일각에서는 18세기 초반까지도 본다) 1970년대 초에 하나의 장르로 유형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의 브롱크스(Bronx)라는 곳에 거주하던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돈 없이도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던 것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브레이킹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놀이 문화들이 랩을 하는 엠시잉(Mcing), 음반으로 음악을 틀고 스크래치 등의 기교를 부리는 디제잉(DJing), 유성 펜이나 스프레이, 분필 따위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등인데 이러한 놀이 문화를 한데 모두 모아 파티를 즐기던 문화는 힙합(Hiphop)의 기원으로 이어진다. 이 문화들의 공통점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당시 브롱크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적은 돈으로 큰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놀이를 즐길 수밖에 없었다. 브레이킹은 그중에서도 특히 돈이 적게 드는 놀이였다. 성별, 나이, 인종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에 완벽히 부합하는 종목 아닌가? 사실 브레이킹의 올림픽 종목 채택은 1984 LA 올림픽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브레이킹의 종목 선정을 다뤘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꽤나 근접하게' 종목 선정에 도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브레이킹계 내부에서 확실한 동의 여론이 조성되지 못했고, 결국 '문화예술'로 남았다.

무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채점법

"브레이킹 종목은 어떻게 평가할까?" IOC나 세계연맹에서도 가장 고심한 부분이 바로 채점이다. 여타 종목과 달리 브레이킹은 정형화된 경기 규칙이나 동작, 계량 및 측정이 가능한 요소가 전무하다. 얼마나 더 창의적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

점이었기에 이러한 무형의 창의성을 유형화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온 채점법이 바로 트리비움(Trivium)이라는 표준화 채점표다. 트리비움은 신체적 능력, 예술적 능력, 해석적 능력을 평가한다. 즉, 누구의 동작이 더 어렵고 정교하며 완벽했는지, 누구의 동작이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웠는지, 누구의 동작이 현장 상황과 음악에 더 어울리고 적합했는지를 비교해 계량화된 지표에 기입하는 것이다. 결국 득표를 더 많이 하거나 동률일 경우 총점을 더 많이 얻은 선수가 승리한다. 이 채점법은 현재까지 나온 브레이킹의 채점법 중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브레이킹 동작이더라도 선호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국제심판들은 매년 수차례씩 검정회를 통해 기준을 표준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동작을 가려내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진정으로 더 노력한 자에게 더 큰 보상을 안겨주는 공정함이기 때문이다. 브레이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분명 어둠도 있다. 브레이킹 강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개인 종목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경쟁국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도전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단은 최근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제 항저우대첩까지 1달여, 파리대첩까지 1년여도 채 남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긴장과 부담은 선수의 몫이다. 하지만 즐기는 것은 관중의 몫이다. 선수들이 부디 부상 없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까지 완주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관중들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과 '스포츠'의 세계로 무한히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글을 쓴 박재민은 비보이 출신의 KBS 해설위원으로 스노보드와 3x3 농구에 이어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브레이킹 해설 데뷔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브레이킹 정책을 연구했을 만큼 브레이킹 연구에 힘써왔으며 현재는 정화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 학과장을 맡고 있다. '십잡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브레이킹 국제심판,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이사, 배우, 작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다.



©shutterstock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점음의 돌직구, 뜨겁게 홈런 야구동호회 _____ 페가수스 PEGASUS

페가수스 동호회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뜨거운 태양도 이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한다. 43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운대학교 야구동호회를 페가수스가 서울시민리그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8월 6일, 난지야구장에서 열린 예선 4차전에서 하늘을 나는 비마(飛馬)처럼 멋진 경기력을 펼친 이들을 만났다.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성우 •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아마야구반 회장이자 외야수를 맡고 있는 전자재료공학과 20학번 배성우입니다.

한익수 • 안녕하세요. 포수와 주장을 맡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19학번 한익수입니다.

이준 • 안녕하세요. 페가수스에서 투수로 활약하는 영어산업학과 18학번 이준입니다.

강희주 • 외야수와 포수,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소프트웨어학부 19학번 강희주입니다.

김지환 •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새내기이자 투수인 스포츠융합과학과 23학번 김지환입니다. 팀에서 막내로서 형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페가수스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창단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익수 • 광운대학교 페가수스 팀은 1981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42년이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단 당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선배들이 몇 개 안 되는 야구 세트와 글러브로 페가수스를 시작하셨어요. 그 후로 선후배 간 연계와 지원 덕분에 전보다 훨씬 행복한 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매년 열심히 노력하는 팀입니다.

동호회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한익수 • SNS인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해 팀 활동과 행사들을 홍보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년 1학기에 열리는 동아리 박람회에서도 페가수스 부스를 운영하면서 신입부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해 45명 내외의 선수와 매니저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성우 • 대학야구리그에는 우리 팀 말고도 아주 많은 대학 야구팀이 소속돼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팀의 활동 내용과 소식을 공유합니다. 야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가수스 활동을 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지환 • SNS 홍보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저도 SNS 게시글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가졌던 꿈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웃음).

페가수스는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나요?

배성우 • 페가수스는 휴학생, 재학생으로 이뤄진 팀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수요일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서 경기 연습을 하고, 1학기 종강 후 여름방학 때는 여름 대회에 참여합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주최하는 KUSF 클럽챔피언십에도 해마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만의 장점을 마음껏 어필해 주세요.

이준 • 페가수스는 광운대학교 소속 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낭만' 있는 동아리라고 자부합니다. 전통이 깊은 동호회다 보니 졸업생 선배들도 많이 봤는데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챙겨주십니다. 신입생들이 처음 입단했을 때 선배들이 부담 없이 다가와 줘서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우리 동호회의 자랑입니다.

강희주 • 한 해에 다양한 경기에 참가하고 훈련도 부지런히 합니다. 선수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 덕분입니다. 특히 대학 동호회인지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졸업생 선배님들과 학교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9명의 선수가 함께 하나의 플레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한익수 • 야구는 선수 한두 명의 기량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9명의 선수가 함께 하나의 플레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페가수스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경기를 펼칠 만큼 선수들 간의 유대감이 탄탄합니다. 이 점은 분명 다른 스포츠 종목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는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페가수스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나요?

한익수 • 선수로서 경기를 이길 때 가장 즐겁습니다. 올해 서울 시민리그 첫 예선 경기 때 우리 페가수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타격, 수비 할 것 없이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경기력을 펼칠 날이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룬 성과이기도 하고요.

강희주 • 선수들이 모두 대학생이라 1학기가 종강하고, 여름

방학에 MT를 갑니다. 같은 것을 취미로 삼은 동호회원들과 함께 떠나는 MT는 정말 즐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는 다 같이 야구 경기를 직관하러 갑니다. 훈련이 끝나면 학교 동아리방에 모여 배달 음식도 먹고요. 모든 게 추억입니다.

여러분에게 페가수스는 어떤 존재인가요?

배성우 •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 같은 팀입니다. 진심으로요. 처음에는 운동 동호회라 딱딱한 분위기에 무서운 선배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활동하면서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페가수스처럼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 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위로하며 다독여주는 팀원들이기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주 • 제게도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선배들, 동료들 모두 졸업해서도 함께 야구하면서 교류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팀 동료들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웃음).

페가수스가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준 • <야구의 인문학>이란 책에서 야구는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 사람이 흠으로 들어올 때 점수가 나는 유일한 경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가장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김지환 • 야구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고 있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투수가 공을 던져야 게임이 시작되고, 투수 뒤에 8명의 야수가 투수를 믿고 경기에 임해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서울시민리그에 참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익수 • 경기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 또는 그 이상을 모두 보여줬던 순간들이 있어서 크게 만족합니다. 좋은 경기력이 돋보였던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하도록 남은 한 경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준 • 서울시민리그가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결승전이 실제 프로리그 경기장에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올해는 결승전까지 가기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후로 한 단계씩 성장해서 내년에는 우리 페가수스가 결승전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웃음).

강희주 • 지금까지의 경기 성적은 1승3패로 결과로만 봤을 때

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연습했던 것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여 뿌듯합니다. 남은 경기도 잘 마무리해서 본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수 개개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가장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준 • 합리적인 참가비, 수준급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회인들이 스포츠라는 공통점으로 리그에 참여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익수 • 대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야구 리그는 전국대학야구연맹회(AUBL)와 대학생 리그들뿐입니다. 다양한 팀과 경기를 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지만 대학생들끼리만 겨룬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서울시민리그는 서울시에 속한 거의 모든 야구팀이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실력을 갖춘 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불어 우리 팀의 경기 실력과 감각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참가했습니다.

김지환 • 출전을 결심하고 학기 중에는 매주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선수들 전원이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쌓은 실력으로 경기에 출전하거나 시간이 맞는 선수들끼리 타격, 수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과 맞붙은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승리의 웃음을 보이고 있다

19th Asian Games Hangzhou 2022

올랐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이다. 야구도 총 7번의 대회 중에서 5번 금메달을 차지해 압도적인 최다 우승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약 이번에 우승한다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4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다.

황선홍 24살 이하(U-24)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7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 22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강인(PSG), 박진섭(전북), 설영우(울산) 등 와일드카드 3인방이다. 특히 이번 여름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꼽히는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한 이강인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대표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황선홍호에서 가장 강한 포지션으로 꼽히는 2선 라인도 엄원상(울산), 송민규(전북), 고영준(포항) 등 K리그에서 검증 받은 선수들이 승선했다.

다만 기대와 함께 불안도 공존한다. 먼저, 비교적 약점으로 꼽혔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와일드카드로 메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선홍 감독이 K리그 득점왕 주민규(울산)와 끝까지 조율을 했으나 결국 승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발표 뒤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돼 빠진 이상민(생남)의 빈자리도 아시안게임 규정상 대체 선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1명이 대회에 참가하며 엔트리 1명을 손해 보게 됐다. 파리 생제르맹과 출전 조율을 해야 하는 이강인의 출전 여

5년의 기다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온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가 5년 만에 다시 열린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주인공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비록 2023년에 개최되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란 이름을 그대로 쓴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다.

‘종합 2위’ 탈환 노리는 한국, 일본을 넘어라

한국의 목표는 종합 2위다. 한국은 그간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에서 잇달아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에서는 종합 3위(금 49·은 58·동 70)에 머물렀다. 당시 한국은 일본(금 75·은 56·동 74)보다 금메달 29개가 적었다. 일본이 최근 각종 스포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과제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선수단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약 1250명의 선수단을 이끌 선수단 단장은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이 맡았다. 일본 출신 재외동포인 최 회장은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끈다. 2021년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 때 선수단 부단장을 맡았던 경험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수단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선수단

부단장은 이상현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이 맡았다.

국가대표 요람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도 담금질이 한창이다.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재근 선수촌장은 지난 3월 부임한 뒤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 장 선수촌장은 이런 이유로 사라졌던 산악 구보와 새벽 운동을 부활시켰다. 새벽 시간대 선수촌 내 초고속 인터넷망을 차단했고 외부 시스템도 바꿨다. 이런 변화가 구시대적·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따라오지만 그만큼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축구와 야구, 연속 금메달 꿈 이뤄질까

한국은 축구와 야구에서 모두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축구는 역대 5회 우승으로 이란(4회)을 제치고 1위에



황선우 선수(좌), 이상혁 선수(우) 등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국민이 주목해야 할 선수들이 최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부도 여전히 남은 변수다.

류종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지난 6월 대표팀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투수 12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3명 등 총 24명이다. 발표 당시 대표팀 평균 나이는 23.24살. 아시안게임에 프로 출전이 가능해진 1998 방콕 아시안게임(22.33살) 이후 가장 젊은 대표팀이다. 와일드카드에는 구창모(NC), 박세웅(롯데), 최원준(기아)이 뽑혔다. 나이가 어린 대표팀인 만큼 군 미필인 선수가 19명에 달해 만약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혜택을 보는 선수들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일찌감치 명단을 발표한 야구대표팀도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에이스 이정후(키움)의 부상이다. 이정후는 7월 22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교체됐다. 27일 왼쪽 발목 수술을 받았고, 예상 재활 기간이 3개월에 달한다. 아시안게임 출전은 불발된 셈이다. 부상 문제로 인한 엔트리 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선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 이정후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특급 카드다. 더욱이 선발 당시 부상을 안고 있던 구창모마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대회 참가가 불투명하다.

항저우의 별, 그리고 파리의 별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2024 파리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린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전초전 성격이 짙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양궁은 물론 최근 새로운 스타들이 등

장하며 떠오른 높이뛰기·수영 등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 또한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등장할 브레이킹을 비롯해 e스포츠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국제 종합대회에 첫선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수영과 높이뛰기는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들이 '아시아의 한계'를 넘고 있다. 먼저, 수영 황선우(강원도청)는 한국 수영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황선우는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1분44초42)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1분44초47)에 이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이다. 박태환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다.

높이뛰기 이상혁(용인시청)도 도쿄 올림픽 4위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7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우승을 차지한 그는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챔피언에 오르며 항저우 금메달을 향한 청신호를 켜다.

올해 11개 국제대회에서 결승 진출 10번, 우승 7번을 일군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도 기세가 무섭다. 안세영은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750 일본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를 높인 안세영은 7월 31일 여자 단식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건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7년 만이다. 젊은 층의 눈길을 끌 종목으로 꼽히는 리그오브레전드(LoL)는 치열한 한중전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5월 '제우스' 최우제(T1), '카나비' 서진혁(정통 게이밍), '페이커' 이상혁(T1), '초비' 정지훈(젠지), '롤러' 박재혁(정통 게이밍), '케리아' 류민석(T1)을 국가대표로 뽑았다. 각 라인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한국은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었던 자카르타 - 팔렘방 대회에서는 중국에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정식 종목으로 열리는 이번에 초대 챔피언 자리를 노린다. 지난 6월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인터내셔널 시리즈 시상대(동메달)에 오른 전지예 등 브레이킹 국가대표도 대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스포츠 외교 무대 될 항저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회 참가가 뜨거운 감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총회에서 두 나라 선수들의 아시안 게임 초청을 승인했다. 이들은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고 국기 등 나라의 상징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성적으로 공식 집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결국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파리 올림픽 참가를 위한 초석이라는 의식이 끊어질 않고 있다.

북한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오랜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한다. 북한은 앞서 2020 도쿄 올림픽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했는데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2년까지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2022 베이징 올림픽 참가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자격 정지가 풀린 데다 북한도 참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어렵다.

2022 베이징 올림픽 때 제로 코로나를 밀어붙였던 중국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당시 선수단을 포함해 스태프, 자원봉사자, 기자를 모두 경기장과 호텔에만 철저히 분리하는 펼쳤다. 이른바 폐쇄 루프다. 중국은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이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던 위드 코로나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선전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꾼 만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다른 대회 운영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

글을 쓴 **이준희**는 한겨레 문화부 스포츠팀 기자다. 2018년 입사해 사건팀, 중구닷컴, 탐사팀 등에서 일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승패와 기록이 아닌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드라마라고 믿는다. 희극부터 비극까지, 알록달록 스포츠의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의 활약도 놓칠 수 없었다



스포츠 기본 계획 3기, 일본이 품은 스포츠 비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수립된 '제3기 스포츠 기본 계획'은 스포츠정책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2012년 4월 처음 발표된 이후 제3기째 시행 중인 일본의 스포츠 기본 계획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이 추진할 5년(2022~2026년) 동안의 스포츠 비전과 구체적인 스포츠정책을 제시한다.

스포츠 기본 계획의 중점 영역

일본은 지속적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포츠 기본 계획(이하 '계획')은 2012년 제1기(2012~2016), 2017년 제2기(2017~2021)를 거쳐 2022년에는 제3기 계획(2022~2026)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2기 계획의 경우 스포츠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

도록 하고, 스포츠단체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체험·관람·지원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스포츠 참가 인구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장소 확보(스포츠 실시율 향상 등), ②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고 유대감이 강한 사회의 실현(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 등의 실현,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지역의 활성화 등), ③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 및 환경 정비(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경기력 강화 지원 등), ④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 추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향상(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강화 및 도핑 방지 활동 추진 등) 등이 있다. 제3기 계획은 제2기 계획의 추진 기간 중 발생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한 스포츠 활동의 제한이 개인의 체력 저하나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게 됐고

스포츠가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됐다. 또한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무관중으로 개최됐음에도 스포츠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사회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일본의 스포츠청은 제3기 계획을 통해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했고, ①스포츠의 창조와 육성, ②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임 마련, ③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뒀다. 제3기 계획은 12개의 종합 시책과 160개의 구체적인 시책을 담고 있다.

스포츠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시책

제3기 계획은 세 가지의 중점 영역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했다. ①스포츠의 창조와 육성에서는 성별, 연령, 장애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지도자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우수한 스포츠지도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 스포츠 업계에서 기업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변형(Digital Transformation, DX)의 추진도 포함된다. ②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임의 마련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스포츠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한다. 나아가 스포츠 활동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인 스포츠 단체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스포츠 분야의 관계 단체 등이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영역에서는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의 역할 확대와 체제 강화를 통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창출 등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했다.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발굽·육성 등과 더불어 이들이 스포츠 의과학, 정보 등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 계획의 12가지 시책

- ① 다양한 주체를 위한 스포츠 기회 창출
- ② 스포츠 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 ③ 국제 경쟁력 향상
- ④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
- ⑤ 스포츠에 의한 건강증진
- ⑥ 스포츠산업 성장 도모
- ⑦ 스포츠에 의한 지방 활성화, 마을 만들기
- ⑧ 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의 실현
- ⑨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개혁·경영 능력 강화
- ⑩ 스포츠 참여인구의 확대와 인재의 육성·장(場)의 확충
- ⑪ 스포츠 참여자의 안전·안심 확보
- ⑫ 스포츠 인테그리티(Integrity) 확보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글로벌 스포츠 프리즘 45호

'스포츠권' 보장이 핵심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됐으며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스포츠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우리나라의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과 일본의 '스포츠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시책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 스포츠권의 보장, 즉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공통적인 핵심이다. 스포츠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및 스포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스포츠권이 더 촘촘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

글을 쓴 유소미는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이다. 스포츠법과 스포츠정책을 연구하며, 특히 스포츠의 공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e스포츠의 저변 확대,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관계 법령 체계 재구축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특강, 스포츠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장 밖으로 나선 스포츠 팝업 스토어

대중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색다른 경험과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가 전 분야에 걸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스포츠도 마찬가지. 운동과 스포츠의 즐거움을 전하기에 여념 없는 스포츠 팝업 스토어의 세계로 떠나 보자.

널리 퍼트린 프로리그의 매력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지난 7월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KBO ROAD'를 열었다. 지난해 처음 열린 'SLIDING TO YOUR LIFE'에 이은 두 번째 팝업 스토어다. 이번 팝업 스토어의 콘셉트는 'FEEL THE GROUND'로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팬들에게 전하기 위해 실제 야구장의 느낌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미디어룸, 투수 및 포수 체험 게임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러

스트레이터와 협업해 제작한 야구 굿즈, 야구장에서 많이 마시는 맥주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스무스 라운지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간 경험을 통해 팬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프로야구 사이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다. 이강인의 파리행과 김민재의 뮌헨 이적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유럽 축구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열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이하 EPL)의 방한 시기에 발맞춰 오픈한 EPL 명문 구단 연합 팝업 스토어 '풋볼 스탠다드'가 그 주인공이다. 7월 전국 5개 아울렛 및 백화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EPL 구단들의 유니폼과 각종 굿즈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인 송종국·이운재의 팬 사인회, 스크린 축구 토너먼트 대회 등 다양한 축구 체험 거리도 함께 마련돼 큰 호평을 받았으며 축구복을 패션에 매칭하는 '블록코어' 트렌드를 겨냥한 아이템도 두루 선보여 패션 트렌드세터들의 방문도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EPL 연합 풋볼 스탠다드

©롯데백화점



NBA 비비고아레나

©CJ제일제당

스포츠와 마케팅을 접붙이다

스포츠를 메인 콘셉트 삼아 브랜드와 제품 마케팅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작년 10월 미국 프로농구(이하 NBA) 명문 팀 LA레이커스 스폰서십을 활용한 비비고 아레나 팝업 스토어를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했다. 비비고 메뉴와 함께 LA레이커스 경기를 볼 수 있는 스포츠 펌, LA의 야외 농구장을 구현한 루프톱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 이 팝업 스토어에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자유투를 던지는 '프리 드로우 챌린지', 프라이팬에 만두를 골인시키는 '만두 패스 챌린지' 등 다양한 농구 관련 이벤트도 인기리에 진행됐다. CJ제일제당은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 비비고의 세계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최근 e스포츠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로 나선 기아는 e스포츠 활성화와 자사의 전기차 홍보를 모두 도모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지구 6A3'을 지난 7월 열었다. 이 팝업 스토어는 방문객이 현실과 또 다른 세계에서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졌다. EV9이 전시된 섹션 1을 지나면 현실과 또 다른 세계인 '지구 6A3'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질을 가늠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섹션 3에는 유명 프로게이머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광고 촬영장 형식의 포토존이 조성돼 있는데 방문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아 전기차의 첨단 이미지도 경험하게 된다.

색다른 스포츠 경험으로 MZ세대를 사로잡다

최근에 레트로를 팝업 스토어에 적극적으로 덧입힌 스포츠 브랜드도 등장했다. 프로스펙스는 작년부터 자사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하는 단독 브랜드 '오리지널 스포츠'의 팝업 스토어를 레트로 체육사 콘셉트로 꾸며다. 판매품 또한 1970년대 후반의 감성을 재해석한 빈티지 제품으로 구성했는데 작년 12월 대구 동성로에서 문을 연 팝업 스토어에는 2주 동안 8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이처럼 다양한 콘셉트의 스포츠 팝업 스토어가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MZ세대의 경험 중심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다.

희소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데 한정된 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다방면에 걸친 활동적 체험을 선사하는 스포츠 팝업 스토어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다. MZ세대 방문객들은 스포츠 팝업 스토어의 경험을 SNS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스포츠와 브랜드는 큰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도 좋은 입소문을 낼 수 있다. 스포츠 팝업 스토어는 방문객과 스포츠 모두에 훌륭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셈이다. ✿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스포츠



©프로스펙스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 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살기>를 집필했다.

야구인들의 축제! 2023 KBO 올스타전



지난 7월 15일, 부산 사직구장의 여름밤은 2023 KBO 올스타전의 열기로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가을 야구를 앞둔 지금, 점수와 순위에 연연하는 마음 대신 오직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힘껏 소리쳤던 그날의 여름밤을 숫자로 추억해 본다.

40회

한국프로야구가 맞이한 40번째 KBO 올스타전이다. KBO 올스타전은 1982년 국내 프로야구 출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해 열렸다.

16년

올해 KBO 올스타전은 부산 시민에게 의미가 더욱 크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로써 부산광역시는 올해를 포함해 총 10번째 올스타전을 개최하게 된 셈이다.

2시간 27분

올스타전 경기 소요 시간이다. 한편 1993 KBO 올스타전은 1시간 44분으로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고, 2000 KBO 올스타전은 무려 3시간 59분으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22,990명

KBO 올스타전을 찾은 관중 수다. 2023 KBO 올스타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진, 역대 22번째 올스타전 매진을 기록했다.

8대4

나눔 올스타팀이 드림 올스타팀을 8대4로 꺾으며 2년 연속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나눔 올스타는 선발진으로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선수,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선수, 채은성(한화 이글스) 선수, 소크라테스(KIA 타이거즈) 선수, 노시환(한화 이글스) 선수, 박건우(NC 다이노스) 선수, 박동원(LG 트윈스) 선수, 김주원(NC 다이노스) 선수로 구성됐다.



2팀

올해 KBO 올스타전은 다른 때와 같이 **2개의 팀(나눔 올스타팀, 드림 올스타팀)으로 나뉘었다.** 치유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유니폼을 갖춘 나눔 올스타팀에는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가 한 팀으로 뛰었다. 희망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유니폼을 갖춘 드림 올스타팀에는 SSG 랜더스,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가 팀을 이뤘다.



91.8%

채은성(한화 이글스) 선수가 91.8% 득표율을 차지하며 미스터 올스타로 불리는 MVP에 선정됐다. 1회 선제 결승 적시타에 이어 4회 만루 홈런까지 터트리며 한 경기에서 5타점을 수확한 결과다. 올스타전에서 만루 홈런이 나온 것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김용희(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이후 41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5명

롯데 자이언츠 출신이었던 5명의 선수가 시구자로 마운드에 섰다. 16년 만에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인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에서 개최된 기념이다. 김용희(1982년, 1984년) 선수, 허규옥(1989년) 선수, 김민호(1990년) 선수, 김응국(1991년) 선수, 전준우(2013년) 선수가 시구를 선보였다.

50명

KBO 올스타전에 출전한 프로야구 선수 인원이다. 올스타전은 10개 구단에 소속된 모든 프로야구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 팀당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한 점수가 상위 12위 안에 드는 선수와 감독이 추천한 선수 13명이 출전했다.

59.68점

'올스타 베스트 12'에서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한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선수의 점수이다. 다섯 시즌 연속이자 개인 통상 6번째 베스트12 선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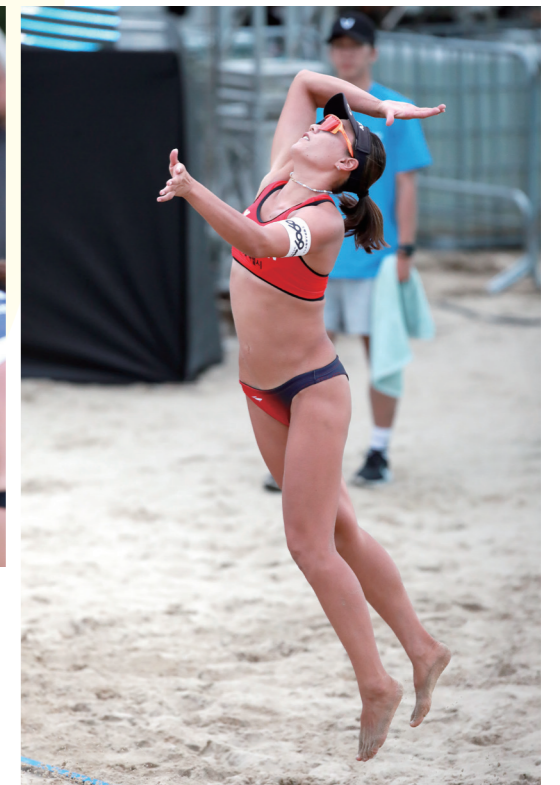


12표

김민석(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12표를 얻으며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김민석 선수는 기자단 투표 24표 중 절반의 표와 함께 상금 300만 원도 받았다.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 닮은꼴로 '사직 제니'라는 별명을 얻은 김민석 선수는 첫 타석에 등장하기에 앞서서 제니의 대표 솔로곡인 '솔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늦여름, 한강에서 쏘아올린 승부수

2023 서울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잠실 한강공원 특설경기장인 수변 모래 일광욕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014 대회 이후 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9개국 18개 팀, 36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지은·김서연 선수, 이호빈·전하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변 심터’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다, 한강 트레킹

늘 우리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한강이지만 여유를 만끽할 새 없이 저버리고 마는 하루에 마음먹고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새롭게 떠오를 하루를 위해 저버리는 하루를 붙잡고 한강 한 바퀴 걸어보는 것 어떨까?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한강을 걷고, 말고, 보고, 느껴보자. 한강의 새로운 모습이 펼쳐진다.





Q. '2023 한강트레킹'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2020년에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서울트레킹에 참가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번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았어요. 특히 아내와 저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첫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마라톤과 등산을 자주 했어요. 우리 부부의 취미를 아이들도 경험해 봤으면 싶더라고요. 올해 목표가 가족 동반 5K 마라톤 대회 참가인데 이번 트레킹을 통해 아이들에게 '5K'라는 거리감을 익히게 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Q. 가족과 함께한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작 전부터 제게 설렘을 가져다줬어요. 서울 한강의 멋진 풍경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건강도 챙겼고, 가족 간의 사이도 돈독해졌어요. 아, 몽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날 코스가 양화 한강공

원부터 여의도물빛광장까지였어요. 출발 전에 아들에게 스포츠워치를 채워주면서 5K 코스이니 꼭 완주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 스포츠워치에는 완주 지점까지 4.7K로 기록됐더라고요. 아들이 300m를 더 채우겠다며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면서도 몽클한 기쁨을 느꼈어요.

Q. 아직 '한강트레킹'을 모르는 서울시민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트레킹만 하지 않아요. 서울시체육회에서 마련한 문화 공연 덕분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추억도 쌓고, 건강도 얻을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기념품도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참! 참여하는 회차의 트레킹 코스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각종 볼거리를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9월에는 장충단공원 일원, 10월에는 난지한강공원, 11월에는 안산자락길 코스가 있다고 하니 도전해 보세요! 서울 한강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함께하는 건강한 주말
2023 한강트레킹

- 운영 회차 : -3차: 9월 중, 백범광장 → 남산타워 → 장충단공원
-4차: 10월 중, 난지한강공원(변경가능)
-5차: 11월 중, 안산자락길(변경가능)
- 운영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서울시민
- 참가비 : 무료
- 참가 접수 방법: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
(www.seoulsports.or.kr)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민선2기 허대무 강남구청체육회 회장 취임식 개최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강남구 일원예코센터에서 허대무 강남구청체육회 회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체육회 강태선 회장을 비롯해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형태 강남구청장, 조정은 전 강남구청체육회 회장 등 여러 내빈이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강태선 회장은 허대무 신임 회장에게 인준패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통해 “민선2기 강남구청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허대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강남구와 서울시 체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전관왕 달성



지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서울시청팀이 남자 일반부 4개 부문 전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전관왕 달성은 전국 규모 남자 실업팀 대회에서 최초로 거둔 성적으로 단체전에 출전한 박기현 박상민 김한솔, 이현권, 임민호 선수, 개인단식 박기현 선수, 개인복식 김한솔, 이현권 선수, 혼합복식에 출전한 박상민 선수가 석권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울시청 소프트테니스팀 김태정 감독은 “앞으로도 선수 기량 향상과 집중 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시청팀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전관왕을 달성한 서울시청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서울시청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검도회 ‘제10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검도대회’ 종합우승

서울특별시검도회가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검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검도회는 초등부부터 중년부까지 7개부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중년부·장년부 동반 우승, 여자부·대학동아리부 2위, 청년부에서 3위를 차지해 총점 900점(2위 강원도 820점, 3위 인천시 790점)으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서울시검도회 박학훈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체육 검도가 활력을 찾고 큰 성과를 보여준 감독, 임원 및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간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체육진흥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목) 오후 5시 (주)일미농수산 대강당에서 선진 체육문화 환경조성과 조직 역량 강화, 전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 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배영성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양 체육회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상호 교류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저변 확대로 이어져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청 서채현 선수,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동메달 획득



서울시청 서채현 선수가 지난 8월 6일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2023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리드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메달은 서채현의 올 시즌 리드 부문 첫 국제 대회 메달이며,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1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이후 2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서울시청 서채현 선수는 “팀을 비롯해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실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며 “남은 콤파인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강태선 회장은 “올 시즌 첫 국제 대회 메달을 획득한 서채현 선수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며 “서울시청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제9차 한강 수상스포츠체험 개최

지난 7월 8일(토) 반포한강공원 더리버마리나에서 제9차 한강 수상스포츠체험이 개최됐습니다. 한강 수상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은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한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크루저 요트,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카약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은 9월 3일(일)까지 매주 주말 총 20회 차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들과 함께 안전교육 및 기초 강습을 받은 후 4개 종목을 80분씩 체험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강습과 장비대여료 포함 1만 원으로 별도의 간식 세트가 제공됩니다.



제26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생활체육 활성화와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제26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은평인공암벽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제104회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선발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는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을 포함,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큰 관심을 받으며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문수아, 문민석 남매 동반 우승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 문수아(서울체중), 문민석(PYD Swim Club) 남매가 개인혼영에서 동반 우승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나 문수아 선수는 2022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기대주로, 개인혼영 400m에 첫 출전해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선수가 26년 전 세웠던 대회신기록을 0.42초 단축한 4분 52초54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동생 문민석 선수도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해 2분21초32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향후 수영 남매의 활약을 기대게 했습니다.

2023 한강트레킹 개최

서울의 명소와 명산을 걷는 서울트레킹이 한강으로 장소를 이동해 '2023 한강트레킹'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첫 한강트레킹은 6월 24일(토) 양화한강공원에서 여의도한강공원까지 아름다운 한강 변 약 5.5km를 함께 걸으며 버스킹 공연, 퀴즈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2차 한강트레킹은 지난 8월 12일(토) 한낮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야간 트레킹으로 진행했습니다. 광나루자전거 공원을 출발해 구리암사대교를 돌아오는 5km 코스를 서울시민과 함께 걸었습니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새로운 한강코스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이장호 신임 사무처장 선임

이장호 前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가 지난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임 이장호 사무처장은 법조인이자 체육행정가로 대한체육회 이사와 고문 변호사,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체육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제5기 임원진은 오세훈 회장(서울특별시, 당연직)과 황재연 수석부회장(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을 비롯해 정희영 부회장(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및 설세훈 부회장(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당연직) 외에 26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지난 6월 8일에 개최된 제17차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통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 : 2023. 6. 16.(금)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선수단 포상용품 전달식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상용품 전달식 개최

지난 7월 4일,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상용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활약을 펼친 학생 선수와 지도자, 참가 학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수혁(삼성학교, 육상 금), 권서준(창동중, 역도 은), 석재훈(연남고, 배구 동)이 대표선수로 상을 받았고, 열정과 실력으로 선수들을 이끌어 준 육상 김광일 감독, 역도 이주영 코치, 배구 채수혁 코치의 포상도 이어졌습니다. '2관왕' 이현빈(삼성학교, 육상), 김재민(주몽학교, 육상) 등은 다관왕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서준성 감독(주몽학교), 김광일 감독(삼성학교), 박운호 코치(서울농학교)에게는 '최다 메달 획득 학교' 인증패와 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6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실기 지도 능력 향상과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마련한 교육입니다. 서울시장에 장애인체육회 장성범 생활체육팀장은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장애인체육회 대표단 초청 교류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초청해 '장애인스포츠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첫날이었던 7월 10일, 양 단체의 MOU 체결 행사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교류 분야와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과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골볼팀 훈련장도 방문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1월 중순, 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선수단으로 구성된 장애인스포츠교류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 종목별 교류 경기 및 훈련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속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클린스포츠교육 개최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소속 경기인을 대상으로 '클린 스포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골볼, 휠체어컬링 등 8개 팀)와 서울의료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기인들의 스포츠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제4회 항저우아시안 패러게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메이저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포츠인권교육은 김미선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대표가, 도핑방지교육은 김영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정준호(휠체어컬링) 선수는 "궁금했던 금지 약물의 종류와 도핑 검사 절차를 VR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신선하고 유익했다"라며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현대에버다임 MOU 체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현대에버다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2번째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지난 6월 21일(수), 충북 진천에 있는 현대에버다임 사옥에서 열렸으며 체육회와 현대에버다임은 장애인 선수들의 고용 증진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선수단에는 수영종목 정사랑·윤준, 양궁종목 이화숙·조장문 선수가 고용됐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이장호 사무처장은 "현대에버다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수단도 좋은 성적으로 기업과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ZIGZAG QUIZ

지그-재그 낱말 퀴즈

09+10월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도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서울스포츠> 09+10월호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퀴즈판에 09+10월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Q 서울에 있는 야구장은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을 넘어 국제 야구 대회 유치 및 콘서트 등 한국형 스포츠 공간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언어를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 스포츠 공간이기도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HINT #스포츠 웨이브2 #LG트윈스 #두산베어스



- ▶ 참여방법 1. 10월 15일까지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에 정답을 제출한다.
 - 2. 웹진 메인 화면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 3. 당첨자일 경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긴다.
- ▶ 지난호 정답 잠실자연형물놀이장
- ▶ 지난호 정답자 조영* 김양* 강상* 김세* 최이* 전경* 서범* 최용* 고은* 김용*
-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10월 중에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동해·매력
특별시 서울

SEUL
M!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SEOUL SPORTS COUNCIL - KOREA SPORT LEADER